

투데이

“인천~광주 항공노선 신설을”

광주시, 대선공약 과제 선정 추진

광주시가 광주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항공기 노선 신설을 대선 공약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6일 “인천 공항을 이용해 입·출국하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인천공항과 광주공항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천~광주 간 직항노

선 신설을 대선공약 과제로 선정,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지역들은 대부분 인천공항에서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까지 4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인천공항에서 버스로 김포공항까지 이동한 뒤 김포공항에서 광주

행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인천공항에서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까지 4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인천공항에서 버스로 김포공항까지 이동한 뒤 김포공항에서 광주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훈장님께 예절 배워요”

7일 광주 서구 서창 전통향토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예절학당캠프’ 참가 어린이들이 훈장으로부터 전통예절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끝내 기존선 사용 4년 시간끌더니 결국… 호남사람 우통하나”

이용섭 의원, 국토부 결정 맹비난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7일 국토해양부가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목포’ 구간을 기존선으로 활용하기로 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건설하기로 한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은커녕 연구용역에만 4년을 더 소요되고 시속 300km대인 기존 고속철도가 현저히 속도가 떨어지는 저속철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무안공항 활성화 등 여건 성숙 시 신선(新線)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단서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지역민의 원성을 막아보려는 면피용 품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 호남고속철도와 무안공항 모두의 수요가 늘어나고 경제성이 높아져 호남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지경기자 jkpark@

신안 하의·신의 일대에 세계 첫 태양광발전단지

전남도가 세계 최초로 신안군 하의면과 신의면 일대 바다에 태양광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전남도는 7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정순남 경제부지사와 한국남동발전(주) 관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2015년까지 신안 앞바다에 5000㎿여원을 투자해 설비용량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생산되는 연간 발전량은 12만7천700㎿이며, 약 3만6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해양 태양광발전단지는 육상의 태양광 발전보다 10% 이상 높은 발전률을 낼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1인 창조기업 성과 ‘톡톡’

출된 피부를 깨끗하게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출원을 해놓은 상태다.

광주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와 시니어비즈플라자센터는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인 문화전당권역 무등빌딩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5대 전략콘텐츠부문을 중심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센터에는 현재 27개팀 52명의 예비 창업자들이 입주해 창업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와 시니어비즈플라자센터에 입주하면 무료로 사무공간을 지원하며 창업, 경영, 법률, 특히, 마케팅 등 경영 지원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과 협장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설윤숙 씨의 창업아이템 ‘세상방지비누’는 인체에 유익한 약알칼리성 비누로써 음이온을 발생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황사나 방사능비에 노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의회 투자유치 조사특위 25명 증인 채택

강시장 포함…13일부터 3D 한미합작 관련 질의

광주시의회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7일 강운태 광주시장 등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3D 변환 한미합작사업(검)과 관련해 강 시장과 이별로 행정부시장, 송귀근 전 행정부시장, 노희용 문화관광정책실장, 미국 측 파트너인 K2AM 브리튼 리 회장 등 16명을 증인으로, 전문가 등 6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또한, 기동이 중단된 솔린시스 및 시의 전반적인 투자유치사업과 관련

해 홍진태 투자고용국장과 문금주 경제산업국장 등 9명을 증인으로, 솔린시스 우관제 대표를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특위는 오는 13일부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순차적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오는 27일 소속 위원 2명을 미국 LA에 파견해 K2AM의 실체와 광주시가 송금한 650만 달러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같은 달 31일 기술테스트 현장에 참석한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질의와 대화 등을 통해 조

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례 없이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흡집내기로 비칠 수 있어 유감스럽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활동이 객관성과 순수성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정상적인 특위활동은 적극 협조하되 정치적 흡집내기라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한미합작사업 미국 측 파트너인 K2AM에 투자비 명목으로 65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K2AM 측이 기술력 겸증에 응하지 않고 있어 부실추진 의혹을 낳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휴가보다 시정이 먼저”
강시장 국비 확보 전념

강운태 광주시장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중앙부처 장관을 상대로 2013년도 국비 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난 강 시장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장관에게 편지 또는 전화로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시 예산담당부서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예산심의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다음 주부터 중앙부처 방문 등 본격적인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 귀농 크게 늘었다

상반기 2382명…신안 함평 영암 장성 몰려

전남지역 귀농인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는 “올 상반기 귀농인은 1092가구 2382명이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697가구)에 비해 대비 37%가 늘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신안군이 126가구로 가장 많고 함평·영암·장성군이 각각 90가구 이상을 유치했다.

귀농인들의 전 거주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430가구)과 광주

시(380가구)가 많고, 세대주 연령은 40~50대가 57.7%였다. 30

대 이하도 20%로 젊은 인력의 귀농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도 손영호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에게 빙진·논밭 매매 정보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전 작목 안내 및 영농교육을 통해 성공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귀농인들의 전 거주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430가구)과 광주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면 ‘적조’서 계속

여수항을 떠난 지 1시간여 만에 돌산을 두둔포 앞에서 적조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전남도수산과학원 소속 푸른바다호(30t)와 조우했다. 연구원들은 “다행히 아직은 적조신호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일조량이 증가 등으로 남해안 수온 분포가 예년보다 1~3.5도 정도 높은 26.3~27.5도로 적조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수산과학원은 내다봤다. 지난 몇 달 동안 소규모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8월 말까지 중규모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4년 동안 적조 피해가 없었던 어민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적조가 급심했던 지난 2007년 여수시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 폐사로 5억

800만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화정면 개도 앞에서 가두리 양식어업을 하는 김정숙(57)씨는 “적조 발생률을 점검하며 바다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산소발생기를 수시로 가동하고 있고 여차하면 준비된 황도를 살포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겸(46) 여수시 어업생산과 주무관은 “지난 4년간 적조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 소멸한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 빠르게 적조주의보가 발령돼 어민들이 한시라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산과학원은 적조가 발생할 경우 해상가두리 양식장은 상황에 따라 안전해역으로 옮기는 한편,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수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수산과학원은 적조가 발생할 경우 해상가두리 양식장은 상황에 따라 안전해역으로 옮기는 한편,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수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 교육원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24(금)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수 강 려 : W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 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 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시)한국국립대학원 평생교육원학회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국기인증 기관인증 발급 한문지도사(국기인증자격)

•연수과정 중 국가인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 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2. 9. 7(금) 09:10 (총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2. 9. 8(토)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2012. 9. 6(목)~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 강 려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 강 려 월요일 35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